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⑪ 영축산 통도사

▶한줄 요약
영축산이 꼭 인도의 영축산만은 아니다. 불보사찰답게 영축산 통도사에도 부처님이 항상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 문수보살 전한 진신사리 봉안하다

## 독룡 물리치고 터를 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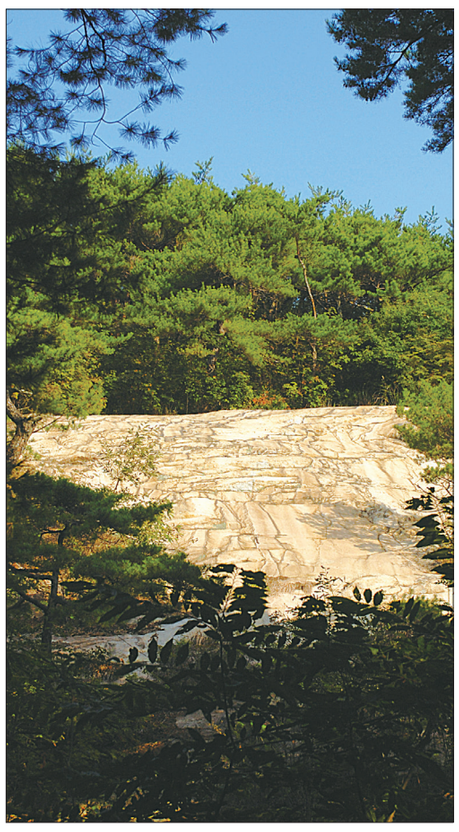
부처님 뵈려 절을 가는 길은 신심으로 가득하다. 간혹 사찰 안쪽까지 차를 타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서 걸어 들어가는 편이다. 특히 경남 양산에 자리한 영축산 통도사를 찾아갈 때는 아예 입구 주차장 매표소부터 걸어 들어간다. 일주문까지 30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다. 무풍한송로(舞風寒松路)라 이름하는 이 길은 참으로 아름다운 절길이다. 그런데 통도사를 갔어도 이 길의 존재조차 모르는 이가 많다. 대부분 일주문 옆 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길은 그 전에 끝이 나기 때문이다. 무풍한송로는 무성한 소나무가 드리우고, 왼쪽 옆으로는 맑고 잔잔한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다. 이 길 도중에는 통도사의 창건 설화를 전하는 용피바위(용혈암)가 있다.

신라의 자장 스님(590?~658?)이 중국 종남산 운제사 문수보살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부처님 가사 한 벌과 진신사리 100과 등을 주면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나라 남쪽 영축산 기슭에 독룡들이 사는 못이 있다. 그 용들이 비바람을 일으켜 곡식을 상하게 하고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 용들이 사는 못에 금강계단을 쌓고 불사리와 가사를 봉하라. 그러면 삼재를 면하게 되어 만대에 이르도록 불법이 전해지리라."

자장 스님은 귀국하여 선덕여왕과 함께 영축산 기슭 독룡들이 사는 못에 이르렀다. 스님의 법력에 의해 용들은 허둥지둥 도망갔다. 다섯 마리는 상북면 외석리 뒤로 날아가고, 세 마리는 하북면 순지리 쪽으로 날아갔다. 그 골짜기를 각각 오룡골, 삼동골이라 한다. 그중 한 마리가 바위에 부딪혀 피를 흘렸다. 지금도 무풍한송로 용피바위에는 그 핏자국이 남아있다. 그런데 오직 한 마리의 눈먼 용만은 굳이 그곳에 남아 터를 지키겠다고 굳게 맹세하였다. 스님은 그 용의 청을 받아들었다. 연못 한 귀퉁이를 메우지 않고 남겨서 용이 머물도록 했다. 그곳이 적멸보궁 옆에 있는 구룡지다. 네댓 평의 넓이에 한 길도 채 안 되는 깊이의 조그마한 타원형의 연못이지만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물이 줄지 않는다.

다른 창건 설화도 있다. 중국에서 돌아온 자장 스님이 부처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절터를 알아보고자 나무로 만든 오리를 공중에 날려 보냈다. 곧 오리는 칡꽃 한 송이를 물고 돌아왔다. 자장 스님은 인근 산을 찾아다니다가 칡꽃이 가득한 곳을 발견하였다. 그곳에 통도사를 세웠다.



통도사 창건설화에 등장하는 한 마리 용의 피가 흘렀다는 용피바위.



신라 자장 스님 독룡들을 물리치고 터를 잡았다고 전해지는 구룡지.

단순한 설화일 수 있지만, 상징이 있을 수 있다. 독룡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무렵, 불교에 대해 텃세를 부린 기존 세력이라 풀이한다. 기존 세력과 대립 구조 속에서 기존 세력은 약화하고 불교가 지역에 자리 잡은 모습이 전설이 된다. 그렇다면, 나무로 만든 오리는 불교가 이 땅에 자리 잡도록 도와준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자장 스님 중국 운제사서 기도**
**문수보살 나타나 '영축산' 언급**
**구룡지 통도사 창건설화 탄생**
**적멸보궁 · 금강계단 위상 높아**

## 불보사찰로서의 높은 위상

〈삼국유사〉 제3권 '전후소장사리조(前後所將舍利條)'에 이런 기록이 있다. "643년에 자장 스님이 부처님의 두골, 부처님의 치아, 사리 100과, 부처님의 가사 한 벌을 모시고 왔다. 그 사리를 셋으로 나누어 한 몫은 황룡사탑, 한 몫은 태화사탑, 한 몫은 부처님 가사와 함께 통도사 계단에 두었다. 그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 알 수 없다. 계단은 2층으로 상층 가운데에 범종 모양의 석개(石蓋)를 안치하였다." 이는 통도사의 불사리 금강계단과 함께 부처님 가사를 모신 사실을 전해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통도사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을 적멸보궁이라 하고, 또 그곳에서 계(戒)를 받는 의식을 진행하기에 금강계단(金剛戒壇)이라 한다. '금강'은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가장 단단한 것을 말하고, '계단'은 계를 전수하는 법단을 말한다. 즉, 금강계단은 금강처럼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계법을 전수하는 법다운 장소라는 뜻이다.

한때는 언제든지 금강계단을 참배할 수 있었지만, 현재 사리탑 보존을 위해 금강계단 참배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법회가 있는 특정 시간에 가능하다. 어느 날 금강계단을 참배할 때였다. 금강계단을 돌던 어느 일행들이 필자에게 물었다. "여기 금강계단이 어디 있어요?" 금강계단을 돌고 있음에도 금강계단을 금으로 된 층계(계단)로 잘못 알고 있었기에 나왔던 질문이다. 금강계단을 본인이 아는 대로 이해하였으니, 당연히 금으로 된 계단을 찾을 수 밖에.

통도사는 삼보사찰 가운데 불보사찰이다. 삼보(三寶)는 부처님[불보(佛寶)], 부처님의 가르침[법보(法寶)],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승가대중[승보(僧寶)]이다. 우리나라에는 삼보사찰이 있다. 통도사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으므로 불보사찰, 해인사는 부처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판)을 모시고 있으므로 법보사찰, 순천 송광사는 고려의 보조 스님 이후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셨기에 승보사찰이다.

통도사가 자리한 산은 영축산(靈鷲山)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던 장소다. 참고로 '鷲'를 '취'라고 발음하여 영취산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통도사 뒷산을 취서산(鷲棲山)이라고도 하는데, 독수리가 사는 산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절 집안에서는, 특히 양산 통도사에서는 '취'가 아니라 '축'으로 발음하여 영축산이라 한다. 중국 수나라 때 천태대사는 지금도 영축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영축산이 꼭 인도의 영축산만은 아니다. 불보사찰답게 영축산 통도사에도 부처님이 항상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 화마 제압하려 둔 소금단지

통도사를 여유롭게 참배하거나 눈썰미가 좋은 이들은 각 전각 처마 아래 있는 조그만 단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한 해의 안녕과 화재 예방을 위해 올려둔 소금단지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다. 그러므로 민간에서도 사악한 기운을 막는 경우에 소금을 상징적으로 사용한다. 또 소금물은 바닷물을 의미하니, 바닷물로 화재를 막는다는 뜻이 있다. 따라서 소금단지는 바닷물로 화재를 막는다는 의미와 화마(火魔)를 제압한다는 의미가 함께 있다.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옷날이 되면, 통도사는 단오절 용왕재를 지낸다. 이 의식을 통해 각 주요 전각 처마 아래 모서리에 1년 동안 있었던 소금단지를 내리고, 새로 소금을 넣은 단지를 올려놓는다. 단지에 소금을 넣고 그 위에 한지로 봉하고 나서 뚜껑을 덮는다. 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있다. 임진왜란 당시 유일하게 화재를 입지 않았던 대광명전에 적힌 게송이다.

**吾家有一客(오가유일객) 定是海中人(정시해중인) 口呑天漲水(구탄천창수) 能殺火精神(능살화정신)**

**우리집에 한 손님이 있으니 필시 바닷속 사람이라. 입으로 하늘에 넘칠 물을 뿜어서 능히 불귀신을 죽이소서.**

'한 손님인 바닷속 사람'은 용왕이다. 소금이 바닷물에서 생산되니 용왕에게 불법을 지키는 임무를 맡겼다. 호법신장인 용왕이 하늘도 넘칠 물을 뿜어서 화마(火魔)를 제압하기를 바란다는 글이다. 즉 삿된 것을 막는 벽사(辟邪)의 글이다.

음력 5월 5일 단옷날은 홀수가 겹쳐 양기가 가장 왕성하고 첫여름이 시작되는 절기다. 이처럼 화기(火氣)가 가장 왕성한 날이므로 단옷날에 소금단지를 마련하여 모든 전각 처마 아래 놓는다. 통도사에서는 단옷날 소금을 교환할 때, 묶은 해의 소금은 신도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행사도 겸한다. 단옷날 아침에 가면 이 소금을 담은 주머니를 얻을 수 있다. 대중스님이 정성껏 마련한 소금 주머니다.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화마를 막는 주머니다. 바깥의 불도 살펴야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불을 살펴야 한다. 때마침 영축산에 부처님 가르침이 울려 퍼진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그러면 무엇에 의하여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에 의해 불타고, 성냄의 불에 의해 불타고, 어리석음의 불에 의해 불타고 있고…."** 〈잡아함경〉 제8권 176경

〈불교학자〉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종회의장 벽산 혜암

포교원장 법전 법현 연수원장 가원 성각 교육원장 진각

강원종무원장 영명 서울종무원장 감우 총무부장 진공
경기종무원장 혜암 군산종무원장 덕일 재무부장 지안
충청종무원장 진산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사회부장 진성
전라종무원장 덕운 경남서부종무원장 진성 연화부장 정해
경기서부종무국장 보성

종도일동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총무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96번길 62-12 천지암

고성 약수암

주지 수운 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4길 279-71
055)674-7598

